

#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요약문 .....	1
1. 서론 .....	2
2. 행복의 구성요소와 행복 기회불평등 .....	3
3. 조사 설계와 응답자 특성 .....	5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및 표본의 기술 통계	
4.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 .....	9
1) 노년층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세대별/연령별 비교	
2) 노년층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교차분석)	
5. 노년층의 행복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15
6. 결론 .....	21

# 한국 노년층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 노년층(2016년 3월 현재 만 60세에서 74세 인구)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의 3,520명의 설문조사 결과 중 60세에서 74세 노령인구 533명의 설문응답이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같은 경제변수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정감이나 문화체험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아직 우리나라 노년층들에게는 ‘사치’인 것이다. 후술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 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적연금의 가입이나 급여액도 전 소득계층에서 그리 높지 못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어도,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노년층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이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집안이 속한 사회계층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비교적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학력이 평준화 될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1차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필요하다.

## 1. 서론

박근혜 정부의 캐치워드는 행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선거캠프 이름을 ‘국민행복캠프’로 명명하였으며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국민행복기금, 행복주택,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 집권 후 주요 정책에 ‘행복’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국민들이 웰빙과 행복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이다. 언론의 행복에 대한 보도도 그리고 학자들의 행복연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국민도 모두 행복해지고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 조사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규모는 세계 11위, 수출은 세계 6위, 1인당 GDP도 28위로 분명 경제선진국이다. 그런데 2016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58위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은 행복불평등도가 높다. 한국 응답자의 표준편차는 2.1555로,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96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회원국 평균 1.868보다 훨씬 크며 OECD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행복불평등도가 높다 (Hillivell, Huang and Wang, 2016). 소득불평등이 낮은 게 바람직한 것처럼, 행복감도 격차가 크기 보다는 골고루 비슷하게 행복한 게 바람직하다. 상대적 박탈감이 주는 불행감이 매우 큰데, 소득 뿐만 아니라 행복감에서도 격차가 크다면 그 자체로 불행해 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할까? 50%에 육박하는 높은 빈곤율과 OECD평균의 10배가 넘는 자살율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복감이 다른 나라 노인들보다 높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의 동태적 변화분석’에 따르면 노인가구가 될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빈곤진입률이 18.2%에 이른다. 40~59살 가구주의 7.2%에 비해 훨씬 높다. 은퇴이후에도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에서 벗어나는 ‘유효 은퇴 연령’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71.5살, 70.1살에 이른다. 올해 초 한국일보가 기획한 ‘저성장 시대, 한국 리포트 4개국 행복도 조사’<sup>1)</sup>에서도 60세 이상 연령층의 행복도는 3개국(일본·브라질·덴마크)에서는 증가한 반면, 유독 한국만 하락한 것으로 나온다 (오세인, 2016).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 1만451명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노년층의 행복 수준을 우리나라의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행복감은 U자 커브를 그린다고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고 서서히 떨어지다가 50대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고 은퇴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건강히 크게 나빠지는 70~80세까지 상승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도 그럴까? 국제비교 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불평등도가 높다고 했는데, 노년층의 행복불평등도는 어떨까? ‘인생은 60부터’라지만, 소득, 건강 등 노년층이 맞이하게 되는 조건이 크게 달라지기에 누구나가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복의 격차와 원인은 무엇일까?

1) 2015년 12월 실시. 한국의 성인 1천면 전화면접조사 및 나머지 3개국 각 패널 500명 온라인 조사의 결과임.

본 연구는 한국 노령층(2016년 3월 현재 만 60세에서 74세 인구)의 삶의 만족과 행복 기회불평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만을 대상으로한 국제비교는 자료의 한계 상 다루지 않는다. 대신 첫째, 우리나라 노령층이 느끼는 행복을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과연 한국에서도 U자 커브는 유효할 것인가? 둘째, 노인들 사이의 행복불평등은 어떠한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행복할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노령층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소득수준별, 학력별, 출신지역 및 집안배경 등에 따라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4월 5일에 전국 만 16세 이상 만 74세 남녀 3,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결과 중, 만 60세~74세 노령인구 533명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다음 절에서는 행복감의 구성요소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노년층의 특징을 다룬다. 둘째, 조사설계와 응답자 특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노년층의 행복에 대한 실태를 세대별로 비교한다. 셋째,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노년층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혀 낸다. 넷째, 행복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요인들이 남녀, 학력, 소득, 지역, 직업 등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밝힌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다.

## 2. 행복의 구성요소와 행복 기회불평등

행복감 혹은 삶에 대한 만족은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그리고 410쌍의 일관성/이관성 쌍둥이를 비교 연구한 Lykken(1999)의 선구적인 연구에 의하면 유전적 영향이 행복 변량의 40~50%를 설명한다. 그렇다고 유전적/심리적 요인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성별, 연령, 교육, 건강), 경제적(소득, 일), 그리고 사회관계망(결혼, 사회적 자본)의 세가지 차원에서 구분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이는 OECD국가같이 소득이 높고 남녀간의 차별이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의 행복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보다 낮다. 둘째, 연령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는 U자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사람들은 어린 청소년기에 높은 행복감을 보이다가 이후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50대에 다시 반등하여 70대까지 행복감이 올라간다.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70대 중반이나 80대 이후 삶의 만족도가

2) 행복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별다른 추가적인 인용이 없는 경우 대부분 Layard, Clark and Senik (2012)에 크게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다시 하락하지만, 대부분의 인생기에는 U자를 그리는 것이다. 50대 이후 다시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관조 그리고 젊었을 때 가졌던 높은 기대와 열망 수준이 낮아져 기대와 성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 가는 것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증가된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에서는 교육 수준 자체가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국민대중의 교육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곧바로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단지, 교육수준이 괜찮은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 소득과 승진 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건강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그리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객관적인 건강상태 모두 행복감과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다. 그리고 역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건강함이 행복감을 다시 높여주는 선순환을 그리기도 한다 (Diener and Chan, 2011).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자. 첫째, 소득(income)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에 비해 행복도가 높다.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득 상승으로 인해 상향적 사회이동 경험을 하면 그만큼 행복도는 올라간다. 그러나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그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난다고 행복감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않는다. 소득의 영향력은 소득 증가와 함께 줄어들거나 사라지기까지 한다. 마슬로우(Maslow, 1943)의 욕구단계론이 지적하듯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가족/사회관계, 자아실현 등 비물질적 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둘째,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도가 높다. 실업은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근로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방편만이 아니고, 일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수단이고 일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한다고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만족할 만한 괜찮은 일(decent job)일 때 행복과 직결된다. 일을 통해 적정 소득이 발생하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유연하고, 승진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일 자체가 흥미롭고 사회에 이롭다고 느낄 때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

사회관계망 요인을 보면, 첫째 결혼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높은 행복감을 보인다. 그리고 동거 보다 법정혼을 통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다. 둘째, 사회적 자본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 가족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았을 때 행복감이 올라간다.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와 사교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문화체험, 함께하는 운동에 참여하면 할수록 행복해진다.

노년층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선진국에서는 노년기 소득에서 공적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공적연금의 가입 유무와 연금액수가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Holden and Hatcher, 2006; Grinfelde and Mistre, 2008). 고령화와 함께 은퇴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근로가 늘고 있다. 예컨대, 55세에서 65세 독일 남성의 고용률은 2005년 53.6%에서 2015년 71.3%로, 스웨

덴의 경우 2001년 69.4%에서 76.8%로, 영국도 2000년 60.1%에서 68.7%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근로여부와 일자리의 질이 노년층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층일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과 배우자의 사망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앞서 논한 행복 요인들은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노년층일수록 강하다. 노년층의 소득/자산 불평등, 건강불평등, 근로활동 유무,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 등에서 집단 내 격차는 근로연령대 인구의 그것보다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instock and George, 2006; 손병돈, 2009; Hasegawa, 2001; 강혜원.조영태, 2007; 이원진, 2013; 김영선, 2012). 예를 들어, 한국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 가구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529로 전체 가구 대상 지니계수 0.417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병인.전승훈, 2005). 한마디로 근로연령대 인구집단 보다 노년층에서 행복의 기회불평등이 큰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 3. 조사 설계와 응답자 특성

####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자료는 ‘동그라미재단’에서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5일에 실시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 기회불평등 조사’는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는 성별·연령·지역을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16세에서 74세 남·여 3,520명의 조사결과가 수집됐다. 이 중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60세에서 74세 노령인구는 534명이다. 조사 방법은 MS패널을 활용한 웹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115건은 1:1 대면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이자 종속변수인 행복은 설문조사 문항 중 ‘삶의 만족도’이다. 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0점(최저)부터 10점(최고)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토한 변수는 최종학력, 가계월 평균소득, 공적연금소득, 종사직업 및 근로여부, 출신지역, 과거 소속계층인식 (응답자의 15세 시기), 현재 소속계층인식, 만성질환개수, 결혼여부, 자녀 및 친구 관계, 문화생활 등이다.

회귀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변수를 조사의 원데이터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교차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조작화한 변수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가계평균월소득의 경우 19개의 응답항목이 있었는데, 이를 응답자 수의 분포를 감안해 상층(401만원이

상, 30.7%), 중간층(201만원-400만원, 37.5%), 하층(200만원이하, 31.3%)로 재구성했다. 또한, ‘계층이동분류’와 ‘공적연금액’와 같이 조작화를 통해 새롭게 생성한 변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층이동분류의 경우 현재계층인식의 값에서 과거계층인식의 값을 뺀 값이며, 공적연금액의 경우 국민연금액과 공무원연금액을 합한 변수이다. 이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1을 참조하면 된다.

분석에서 사용한 행복불평등은 2016년 UN 세계행복보고서(HIlive11, Huang and Wang, 2016)에서 사용한 방법을 차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개별 응답자들 사이에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여기서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표준편차 (개별 응답치들이 전체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행복불평등이 높은 거로 해석한다.

## 2) 응답자 특성 및 표본의 기술 통계

조사 중 본 연구의 대상인 노년층 응답자는 만 60세 이상 74세까지로 1942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한 자들이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가정하면 1962년부터 1976년 사이에 소득활동을 시작하였고, 남자로서 군대를 갔다 온 것을 가정하면 3년 후인 1965년부터 1979년 사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산업화 세대다. 이들이 60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하면 은퇴 시기는 2002년부터 2016년 사이가 된다. 전체 노년층 응답자 533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8%로 280명이다. 연령은 60-64세가 전체의 58.1%를 차지한다. 최종학력은 고졸이 56.2%로 다수를 차지하며, 거주 지역 중에서는 광역시가 25.8%, 출신지역 중에서는 경상도가 33.7%로 가장 많다. 가계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가족간 이전 등 포함)의 경우에는 201만원에서 400만원까지가 37.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이 각각 114명으로 동일하게 제일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농림어업 종사자가 18명으로 가장 적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이하(62.2%)가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농림어업(4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노년층 응답자의 80%가량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주거의 형태는 대다수가 자가(73%)였다. 응답한 노인들은 대개 1개 가량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77%가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자녀 만남이나 친구만남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은 전혀하지 않는(45%) 비율이 높았다. 노후 대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50%, 군인·공무원 연금의 가입률은 15.7%, 사적연금의 가입률을 21%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자신의 소속계층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거소속계층인식의 경우 하층(43%)과 중간층(51%)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상층(6%)은 거의 없었다. 현재의 경우에는 하층(27%)이 상당히 감소하고 중간층(65%)이 두터워졌으며 상층(6.5%)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계층이동의 경험은 상향경험(48%)이 가장 많았으나, 하향(24.5%)을 경험한 노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행복의 지표로 살고 있는 삶의 만족도의 경우 86% 이상의 인원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38.4%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다. 본론에서 교차분석 시 T-test와 아노바를 통해 집단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고, 영향 요인과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응답자 특성

전체		빈도(수)	퍼센트(%)
		534	100
성별	남자	254	47.6
	여자	280	52.4
연령	60-64세	310	58.1
	65-69세	169	31.6
	70-74세	55	10.3
거주지역	서울	107	20
	경기	108	20.2
	광역시	138	25.8
	경상도	68	12.7
	전라도	49	9.2
	충청도	39	7.3
	강원 제주	25	4.7
출신지역	서울	88	16.5
	경기인천	46	8.6
	경상도	180	33.7
	전라도	108	20.2
	충청 강원제주	108	20.2
가구소득	저소득층	261	30.7
	중소득층	175	37.5
	고소득층	95	31.3
최종학력	중졸이하	93	17.4
	고졸	300	56.2
	대졸	141	26.4
종사직업	관리/전문직	114	21.3
	사무직	114	21.3
	판매직	106	19.9
	농림어업	18	3.4
	숙련/반숙련	75	14
	단순직	26	4.9
	군인/공무원	50	9.4
	무직	31	5.8
주거점유형태	자가	394	73.8
	전세	62	11.6
	보증부월세	32	6.0
	월세	24	4.5
	부모님명의및기타	22	4.1
만성질환수	전혀없음	110	20.6
	1-2개	276	51.7
	3-4개	118	22.1
	5개 이상	30	5.6
현재소속계층	하층	149	27.9
	중간층	350	65.5
	상층	35	6.6

## 4.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

### 1) 노년층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세대별/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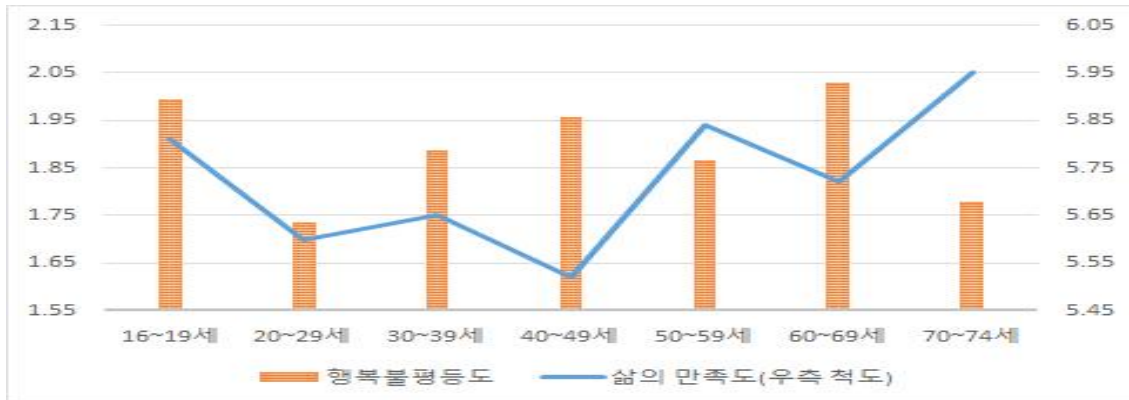
만 16 세부터 만 74 세까지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1 점 척도(0 은 매우만족하지 않는다, 5 중간, 10 매우 만족한다)에서 평균 5.69로 다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소년(16~19 세)의 만족도 평균이 5.81로 가장 높고, 청년(20~39 세)과 중장년(40~59 세)은 각각 5.63 과 5.67 로 전체 평균을 하회한다. 노년층(60~74 세)의 경우 5.74로 청소년 다음으로 높은 삶의 만족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대별 삶의 만족도는 노년층에서 가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행복불평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2>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세대별 (연령)	삶의 만족도 (평균)	응답자수	행복불평등도 (표준편차)
청소년 (16~19)	5.81	541	1.995
청년 (20~39)	5.63	1122	1.816
중장년 (40~59)	5.67	1323	1.920
<b>노년 (60~74)</b>	<b>5.74</b>	<b>534</b>	<b>2.006</b>
전체 (16~74)	5.69	3520	1.913

세대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10년 단위 연령별 추이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아래 <그림 1>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행복도는 청소년기와 노년기에 높은 U자를 그리고 있고 행복불평등도 또한 청소년기와 노년기(60-69 세)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설문대상자에서 75 세 이상을 제외하였는데, 만약 이들이 포함되었다면 행복도 추세선은 70 대 중후반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노년층 삶의 만족도와 행복불평등 (10년 단위 연령대별 추이)



## 2) 노년층 삶의 만족 영향 요인 분석

### 교차분석

노년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0부터 10점까지 11점 리커드 척도이며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귀하께서는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0부터 3점까지는 ‘만족도 낮음,’ 4점부터 6점까지는 ‘만족도 중간,’ 7점부터 10점까지는 ‘만족도 높음’ 으로 재분류하고 독립변수별 교차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 이론에서 예측하는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행복도가 높고, 가계소득과 학력이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공적연금인 연금액수가 200만원 이상인 최 상단과 아예 연금수입이 전혀 없는 최 하단의 경우 행복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의미있는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만성질환수로 나타난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할수록 행복도가 높고, 친구와의 만남과 문화예술 관람 등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체로 사회관계가 활발하지 않은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속한 주관적 사회계층이 높다고 여길수록 행복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15세 때 자신이 속했던 사회계층보다 현재 소속계층이 높다고 여기는 사람, 즉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다고 여기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3> 노년기 행복과 영향요인별 비교

영향요인 (사례수)		만족도 낮음	만족도 중간	만족도 높음	p값
성별	남자 (254)	<b>18.50%</b>	53.90%	27.60%	0.000(T)
	여자 (280)	9.30%	42.50%	<b>48.20%</b>	
연령대별	60-64세 (310)	14.20%	42.60%	<b>43.20%</b>	0.157
	65-69세 (169)	14.20%	<b>55.00%</b>	30.80%	
	70-74세 (55)	9.10%	<b>56.40%</b>	34.50%	
최종학력	중졸이하 (93)	<b>15.10%</b>	48.40%	36.60%	0.001
	고졸 (300)	14.70%	<b>53.70%</b>	31.70%	
	대졸 (141)	10.60%	35.50%	53.90%	
가계소득	고소득층 (95)	4.2%	43.1%	<b>52.7%</b>	0.000
	중소득층 (175)	11.5%	<b>51.0%</b>	37.5%	
	저소득층 (261)	<b>25.6%</b>	48.8%	25.6%	
공적연금	없음 (183)	<b>21.30%</b>	42.60%	36.10%	0.059
	1-49만원 (136)	14.70%	49.30%	36.00%	
	50-99만원 (83)	7.20%	54.20%	38.60%	
	100-149만원 (46)	6.50%	52.20%	41.30%	
	150-199만원 (9)	0.00%	77.80%	22.20%	
	200만원이상 (75)	6.70%	45.30%	<b>48.00%</b>	
근로여부	근로 (261)	14.30%	48.40%	37.40%	0.568(T)
	근로안함 (267)	13.00%	47.50%	39.50%	
현재소속계층	하층 (149)	<b>36.90%</b>	47.00%	16.10%	0.000
	중간층 (350)	5.10%	<b>51.10%</b>	43.70%	
	상층 (35)	0.00%	20.00%	<b>80.00%</b>	
사회적 상향이동경험	상향이동경험없음 (277)	<b>21.30%</b>	49.50%	29.20%	0.000(T)
	상향이동경험있음 (257)	5.40%	46.30%	<b>48.20%</b>	
만성질환수	전혀없음 (110)	12.70%	36.40%	<b>50.90%</b>	0.032
	1-2개 (276)	12.00%	<b>50.70%</b>	37.30%	
	3-4개 (118)	15.30%	<b>54.20%</b>	30.50%	
	5개 이상 (30)	<b>26.70%</b>	40.00%	33.30%	
배우자	배우자있음 (430)	12.80%	48.40%	38.80%	0.358(T)
	배우자없음 (104)	17.30%	46.20%	36.50%	
친구 만남	전혀하지않는다 (7)	<b>14.30%</b>	42.90%	42.90%	0.000
	한달에한두번 (167)	23.40%	46.10%	30.50%	
	한달에서너번 (206)	6.80%	48.10%	<b>45.10%</b>	
	일주일에 네다섯번 (154)	12.30%	<b>50.00%</b>	37.70%	
문화예술활동	전혀안함 (227)	<b>22.50%</b>	47.60%	30.00%	0.000
	분기별1회이상 (191)	7.30%	48.20%	44.50%	
	한달에 2회 이상 (91)	7.70%	44.00%	<b>48.40%</b>	
	일주일에 2회 이상 (25)	4.00%	<b>64.00%</b>	32.00%	

노령층 내 3개 연령대 그룹은 삶의 만족도 관련 집단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통계치는 나오나, 나이에 따라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근로여부에 따른 집단 간 행복감의 차이도 어떤 의미있는 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통계학적으로도 그러하다. 앞서 이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근로가 행복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소득과 안정감 등이 함께하는 괜찮은 일자리여야 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어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년기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괜찮지 않은’ 일자리로라도 근로를 해야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 여부는 이론과 달리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남자와 여자 그룹별로 배우자의 존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교차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4>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배우자가 있을 때 삶의 만족이 높아지나, 여자의 경우 높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을 때 불행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4> 배우자 생존 여부와 삶의 만족도 세부 교차분석

		삶의 만족도			P값 (T-test)
		낮음	중간	높음	
전체	배우자 있음	12.8%	48.4%	38.8%	0.358
	배우자 없음	17.3%	46.2%	36.5%	
남자	배우자 있음	<b>16.3%</b>	55.9%	27.8%	0.100
	배우자 없음	<b>37.0%</b>	37.0%	25.9%	
여자	배우자 있음	8.9%	39.9%	<b>51.2%</b>	0.152
	배우자 없음	10.4%	49.4%	<b>40.3%</b>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 요인을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영향 요인 전체)

모형1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47	1.352		2.698	.007
<b>성별(남성)</b>	-.588	.159	-.147	-3.707	<b>.000</b>
연령	-.005	.020	-.010	-.268	.789
학력	-.288	.173	-.063	-1.664	.097
<b>가계소득</b>	.052	.019	.116	2.729	<b>.007</b>
공적연금액	.001	.001	.031	.773	.440
근로여부	-.036	.153	-.009	-.239	.811
<b>현재소속계층</b>	.522	.049	<b>.473</b>	10.604	<b>.000</b>
<b>사회적 상향이동 경험</b>	.334	.156	.083	2.143	<b>.033</b>
<b>만성질환개수</b>	-.155	.047	-.117	-3.277	<b>.001</b>
배우자유무	-.280	.186	-.055	-1.503	.133
친구만남	.055	.044	.044	1.234	.218
문화예술활동	.049	.039	.046	1.264	.207

앞서 교차표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삶의 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며, 건강하고 현재 소속계층이 높으며 상향이동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만족도가 높았다. 가장 행복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기는 소속계층이었다. 자신이 상층에 속해 있다고 여길수록 삶에 만족하는 경향이 컸다. 다음은 성별, 건강, 가계소득,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순이다. 그러나, 노령층 내 연령, 학력, 근로여부, 공적연금수령액, 배우자 유무, 친구와의 만남, 문화예술활동 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연령의 경우, 본 조사가 만 60세부터 74세 노년층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70대 중반 이후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면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건강 쇠퇴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진국 행복연구의 결과와 달리 친구와의 만남이나 문화예술활동 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등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 어느정도 이루어져 있기에 사회관계망 변수의 중요도가 커지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단계가 못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수령자 비율이 높지 못하고 금액도 얼마 안되어, 삶의 만족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수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6>의 경제적 요인으로만 구성된 회귀 모델 2에서도 공적연금의 수급액은 현재 노년기 삶의 만족과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근로와 삶의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데, 근로와 행복의 관계가 부의 관계라는 것이다. 노년에 생계를 위해 ‘괜찮지 않은’ 일이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고단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모형 2: 경제적 요인)

모형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897	.158		30.953	.000
가계소득	.147	.020	.328	7.417	.000
공적연금액	.001	.001	.065	1.511	.131
<b>근로여부</b>	<b>-.356</b>	<b>.168</b>	<b>-.089</b>	<b>-2.113</b>	<b>.035</b>

주관적 소속계층인식, 소득, 건강 등 영향력이 강한 변수와 함께 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던 사회관계망 변수도 모형 3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며 (R=.269),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교차 분석에서도 드러났지만, 배우자 없는 남성은 삶의 만족이 떨어지는 것을 회귀분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표 7> 회귀분석 결과 (모형 3: 사회관계망 요인)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947	.249		19.844	.000
문화예술활동	.203	.046	.192	4.455	.000
친구만남	.108	.054	.086	1.997	.046
<b>배우자없는 남성</b>	<b>-1.158</b>	<b>.384</b>	<b>-.127</b>	<b>-3.014</b>	<b>.003</b>

## 5. 노년층의 행복 기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앞서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노년기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가계소득, 주관적 소속계층,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건강상태를 꼽을 수 있겠다. 이들 요인들이 모든 노인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다면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행복불평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노년층의 행복불평등이 높다. 행복이 구성요소가 편재되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행복의 영향요인별로 어떻게 편재되어 있으며 왜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8> 학력

		최종학력			P값
		중졸이하	고졸	대졸	
연령	60-64세	13.50%	56.50%	<b>30%</b>	0.006
	65-69세	18.30%	<b>62.70%</b>	18.90%	
	70-74세	<b>36.40%</b>	34.50%	29.10%	
출신지역	서울	3.40%	<b>62.50%</b>	<b>34.10%</b>	0.008
	경기인천	21.70%	58.70%	19.60%	
	경상도	17.20%	54.40%	28.30%	
	전라도	24.10%	50.00%	25.90%	
	충청 강원제주	19.40%	59.30%	21.30%	
아버지직업	관리자/전문가	0.00%	41.40%	<b>58.60%</b>	0.000
	사무직	10.70%	28.60%	<b>60.70%</b>	
	서비스/판매	3.60%	<b>65.50%</b>	30.90%	
	농림어업	<b>30.90%</b>	<b>52.50%</b>	16.60%	
	숙련/반숙련	10.80%	<b>78.40%</b>	10.80%	
	단순직	<b>21.40%</b>	64.30%	14.30%	
	군인/공무원	5.70%	<b>62.30%</b>	<b>32.10%</b>	
퇴직/무직	13.60%	59.10%	27.30%		
과거소속계층	상층	3.10%	<b>59.40%</b>	<b>37.50%</b>	0.000
	중간층	12.90%	<b>51.50%</b>	<b>35.70%</b>	
	하층	<b>24.80%</b>	<b>61.30%</b>	13.90%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b>24.4%</b>	56.0%	19.6%	0.000
	고졸	5.6%	61.8%	32.6%	
	대졸	4.2%	42.3%	<b>53.5%</b>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증가하고, 서울 출신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을 보이며, 아버지의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자/전문가 그리고 사무적인 경우 대졸의 비중이 50%를 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직업이 농림어업이나 단순직인 경우 상대적으로 중졸 비율이 높고 대졸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소속계층이 중간층 이상에서는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이나 하층인 경우 중졸비중이 높고 대졸 비중은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과 집안의 사회적 계층 정도가 자식의 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표 9> 가계소득

		가계소득			P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연령	60-64세	<b>40.50%</b>	<b>34.60%</b>	<b>24.90%</b>	0.000
	65-69세	59.30%	31.10%	9.60%	
	70-74세	<b>67.30%</b>	<b>29.10%</b>	<b>3.60%</b>	
최종학력	중졸이하	<b>72.00%</b>	22.60%	5.40%	0.000
	고졸	51.30%	34.60%	14.10%	
	대졸	29.30%	36.40%	<b>34.30%</b>	
출신지역	서울	<b>38.40%</b>	<b>38.40%</b>	<b>23.30%</b>	0.000
	경기인천	60.90%	21.70%	17.40%	
	경상도	52.50%	30.70%	16.80%	
	전라도	49.10%	34.30%	16.70%	
	충청 강원제주	46.30%	36.10%	17.60%	
종사직업	관리/전문직	33.9%	33.0%	<b>33.0%</b>	0.000
	사무직	33.3%	43.0%	<b>23.7%</b>	
	판매직	58.1%	31.4%	10.5%	
	농림어업	<b>83.3%</b>	16.7%	0.0%	
	숙련/반숙련	64.0%	28.0%	8.0%	
	단순직	<b>88.5%</b>	11.5%	0.0%	
	군인/공무원	38.0%	44.0%	18.0%	
	무직	61.3%	22.6%	16.1%	
아버지직업	관리자 /전문가	29.8%	43.9%	26.3%	0.000
	사무직	32.1%	35.7%	32.1%	
	서비스/판매직	40.0%	32.7%	27.3%	
	농림어업	<b>54.2%</b>	32.4%	13.4%	
	숙련 반숙련	<b>64.9%</b>	21.6%	13.5%	
	단순직	<b>64.3%</b>	28.6%	7.1%	
	군인 공무원	45.3%	30.7%	24.0%	
	무직	59.2%	34.7%	6.1%	
과거소속계층	상층	34.4%	34.4%	<b>31.3%</b>	0.012
	중간층	44.3%	33.9%	21.8%	
	하층	<b>57.0%</b>	31.6%	11.4%	

가계소득은 연령이 높아지고, 학력이 낮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출신 중에 중간소득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높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사무직일 때 고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본인 또한 그러하다. 아버지가 농림어업이나 단순직인 경우 저소득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과거 소속계층이 낮을수록 현재 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에 가입여부			P값	국민연금 금수령 액 월 평균 (만원)	공무원·군 인연금수령 액 월 평균 (만원)	사적연금 가입여부		P값	사적연금 수령액 월 평균 (만원)
		국민연금	공무원/군 인연금	없음				예	아니오		
노인전체 (534)		50%	15.7%	34.3%	-	55.05	265.41	21.2%	78.8%	-	68
노인연령	60-64세	<b>53.50%</b>	14.20%	32.30%	0.011	60.18	273.2	<b>28.10%</b>	71.90%	0.000	66
	65-69세	49.70%	17.20%	33.10%		48.62	263.86	11.20%	88.80%		59
	70-74세	30.90%	20.00%	49.10%		36.76	238.36	12.70%	87.30%		129
최종학력	중졸이하	40.90%	4.30%	<b>54.80%</b>	0.001	39.26	289.5	4.30%	95.70%	0.000	18
	고졸	55.70%	14.00%	30.30%		56.01	241.52	21.00%	79.00%		77
	대졸	44.00%	27.00%	<b>29.10%</b>		62.16	289.29	<b>32.60%</b>	67.40%		62
가계월평균 소득	고소득층	52.7%	23.4%	24.0%	0.000	64.01	280.87	35.3%	64.7%	0.000	83
	중소득층	53.5%	21.5%	25.0%		55.74	257.81	20.0%	80.0%		60
	저소득층	42.7%	1.2%	56.1%		43.21	127.50	7.9%	92.1%		37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관리/전문/ 사무	<b>57.50%</b>	18.40%	<b>24.10%</b>	0.000	64.98	276.76	<b>28.50%</b>	71.50%	0.007	58
	서비스/판매	45.30%	3.80%	<b>50.90%</b>		34.48	205.25	14.20%	85.80%		50
	농림어업	44.40%	0.00%	<b>55.60%</b>		26.5	.	5.60%	94.40%		30
	숙련/반숙련	<b>76.00%</b>	0.00%	<b>24.00%</b>		57	.	16.00%	84.00%		33
	단순직	46.20%	0.00%	<b>53.80%</b>		38.33	.	7.70%	92.30%		9
	군인/공무원	12.00%	76.00%	12.00%		46	259.21	24.00%	76.00%		156
	무직	16.10%	0.00%	83.90%		67	.	19.40%	80.60%		159

통계학적으로 아직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변수가 되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의 가입여부와 연금(예상)액이 어떻게 노년층 내부에서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보자.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가입율은 학력이 높고, 고소득층이며, 관리사무직, 숙련/반숙련(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군인/공무원의 경우에 높았다. 자영업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과 단순직에서는 5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없다. 사적연금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단, 국민연금에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숙련/반숙련 근로자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가입률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1> 건강상태

		전혀 없음	1-2개	3-4개	5개 이상	P값
노인전체(534)		20.60%	<b>51.70%</b>	22.10%	5.60%	-
연령별노인구분	60-64세	26.50%	47.10%	21.90%	4.50%	0.014
	65-69세	11.20%	58.60%	22.50%	7.70%	
	70-74세	16.40%	56.40%	21.80%	5.50%	
성별	남자	12.60%	52.40%	29.10%	5.90%	0.000(T값)
	여자	<b>27.90%</b>	51.10%	15.70%	5.40%	
최종학력	중졸이하	22.60%	54.80%	15.10%	7.50%	0.064
	고졸	18.30%	49.00%	27.30%	5.30%	
	대졸	24.10%	55.30%	15.60%	5.00%	
가계소득	고소득층	24.0%	49.1%	24.0%	3.0%	0.337

	중소득층	19.5%	51.5%	25.0%	4.0%	
	저소득층	18.9%	53.7%	17.1%	10.4%	
종사직업	관리/전문/사무	22.40%	51.30%	21.90%	4.40%	0.098
	서비스/판매	21.70%	54.70%	18.90%	4.70%	
	농림어업	11.10%	61.10%	16.70%	11.10%	
	숙련/반숙련	16.00%	42.70%	37.30%	4.00%	
	단순직	<b>42.30%</b>	26.90%	11.50%	<b>19.20%</b>	
	군인/공무원	10.00%	58.00%	22.00%	10.00%	
	무직	19.40%	71.00%	9.70%	0.00%	

만성질환은 보통 1-2개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만성질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나 소득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저소득계층에서 건강(만성질환 없음)할 확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직업별로 보면 단순직에서 건강하거나 만성병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12> 의료 접근성

		접근성낮음	보통	접근성높음	P값
전체(534)		5.10%	17.80%	<b>77.20%</b>	-
가계소득	고소득층	3.0%	17.4%	79.6%	0.033
	중소득층	3.0%	18.0%	79.0%	
	저소득층	9.8%	17.7%	72.6%	
거주지역	서울	1.90%	15.90%	<b>82.20%</b>	0.008
	경기	6.50%	22.20%	71.30%	
	광역시	2.90%	13.80%	<b>83.30%</b>	
	경상도	7.40%	20.60%	72.10%	
	전라도	14.30%	20.40%	<b>65.30%</b>	
	충청도	2.60%	12.80%	84.60%	
	강원 제주	4.00%	24.00%	72.00%	
종사직업	관리/전문/사무	3.90%	13.60%	82.50%	0.000
	서비스/판매	7.50%	25.50%	67.00%	
	농림어업	22.20%	44.40%	<b>33.30%</b>	
	숙련/반숙련	1.30%	16.00%	82.70%	
	단순직	3.80%	3.80%	92.30%	
	군인/공무원	2.00%	20.00%	78.00%	
	무직	9.70%	19.40%	71.00%	

참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다소 나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접근성이 높고,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 이 점은 종사직업이 농림어업인 경우에 의료접근성이 크게 낮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남성의 배우자 유무

		남자		P값
		배우자있음	배우자없음	
최종학력	중졸이하	88.2%	11.8%	0.000
	고졸	89.8%	10.2%	
	대졸	88.2%	11.8%	
가계소득	저소득층	83.1%	<b>16.9%</b>	0.000
	중소득층	93.3%	6.7%	
	고소득층	89.2%	10.8%	
현재소속계층	하층	85.7%	<b>14.3%</b>	0.003
	중간층	90.6%	9.4%	
	상층	100.0%	0.0%	
종속직업	관리/전문직	89.3%	10.7%	0.000
	사무직	84.5%	15.5%	
	판매직	95.5%	4.5%	
	농림어업	83.3%	<b>16.7%</b>	
	숙련/반숙련	88.1%	11.9%	
	단순직	75.0%	<b>25.0%</b>	
	군인/공무원	95.3%	4.7%	
무직	100.0%	0.0%		

세부 교차분석에서 드러났듯이 배우자 없는 남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뚜렷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주관적 소속계층이 하층인 경우, 그리고 농림어업이나 단순직에 종사하였던 노령층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높다.

<표 14>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		P값
		있음	없음	
과거소속계층	상층	0.0%	100.0%	0.000
	중간층	36.4%	63.6%	
	하층	<b>68.7%</b>	31.3%	
최종학력	중졸이하	51.6%	48.4%	0.740
	고졸	47.0%	53.0%	
	대졸	48.2%	51.8%	
출신지역	서울	42.0%	58.0%	0.617
	경기인천	43.5%	56.5%	
	경상도	48.3%	51.7%	
	전라도 충청 강원제주	49.1% 52.8%	50.9% 47.2%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직업	관리/전문직	44.7%	55.3%	0.015
	사무직	49.1%	50.9%	
	판매직	50.9%	49.1%	
	농림어업	<b>33.3%</b>	66.7%	
	숙련/반숙련	50.7%	49.3%	
	단순직	<b>26.9%</b>	73.1%	
	군인/공무원	68.0%	32.0%	
무직	35.5%	64.5%		

설문 대상자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후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산업화 세대인데, 학력이나 지역 불문하고 응답자의 50% 정도가 상향이동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상층이었던 응답자는 더 상향 이동할 수가 없어서 상향이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층도 상향이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았다. 반면, 과거 소속계층이 하층인 경우에 상승이동 경험 확률이 68.7%로 가장 높다. 산업화 시기에 당시 하층이 하층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상향이동 하였던 ‘행복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단, 상향이동의 경험이 단순직과 농림어업에 종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된다.

<표 15> 현재의 주관적 소속사회계층

		하층	중간층	상층
세대별	15-18세	16.30%	79.90%	3.80%
	19-39세	29.10%	67.80%	3.10%
	40-59세	25.50%	70.40%	4.10%
	60-74세	27.90%	65.50%	<b>6.60%</b>
최종학력	고졸이하	<b>33.10%</b>	63.60%	3.30%
	대졸이상	13.50%	<b>70.90%</b>	<b>15.60%</b>
출신지역	서울	26.10%	62.50%	<b>11.40%</b>
	경기인천	<b>39.10%</b>	56.50%	4.30%
	경상도	31.70%	63.30%	5.00%
	전라도	24.10%	<b>68.50%</b>	7.40%
	충청 강원제주	22.20%	<b>72.20%</b>	5.60%
종사직업	관리/전문직	13.20%	71.10%	<b>15.80%</b>
	사무직	19.30%	<b>71.90%</b>	8.80%
	판매직	31.10%	67.00%	1.90%
	농림어업	<b>44.40%</b>	55.60%	0.00%
	숙련/반숙련	<b>49.30%</b>	49.30%	1.30%
	단순직	<b>46.20%</b>	53.80%	0.00%
	군인/공무원	28.00%	68.00%	4.00%
	무직	25.80%	67.70%	6.50%
아버지직업	관리자/전문가	13.80%	<b>70.70%</b>	<b>15.50%</b>
	사무종사자	14.30%	<b>75.00%</b>	<b>10.70%</b>
	서비스/판매	21.80%	<b>70.90%</b>	<b>7.30%</b>
	농림어업	29.50%	65.40%	5.10%
	숙련/반숙련	<b>40.50%</b>	54.10%	5.40%
	단순직	<b>35.70%</b>	57.10%	7.10%
	군인/공무원	24.50%	<b>71.70%</b>	3.80%
	퇴직/무직	31.80%	59.10%	9.10%
과거소속계층	하층	<b>43.90%</b>	53.00%	3.00%
	중간층	16.50%	<b>76.80%</b>	6.60%
	상층	9.40%	59.40%	<b>31.30%</b>

과거에 하층에 속했던 노인들이 사회적 상향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이미 상층이나 중간층인 사람에 비해 높았으나, 이들이 상층에 진입하는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현재 중간층 혹은 상층일 확률은 과거의 소속계층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하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43.9%는 현재도 자신은 하층이라고 여기고, 중간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대다수는 현재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여기며(76.8%),

과거 상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에서 현재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3%로 뚜렷하게 높게 나왔다. 그리고 현재 중간층이나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자는 학력이 대졸자,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사무직인 경우에 높았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출신에서 상층이라고 응답한 자가 많았으나, 충청/강원/제주/전라 출신에서도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출신 지역은 현재의 사회계층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6.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소득같은 경제변수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 인정감이나 문화체험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변수는 아직 우리나라 노년층들에게는 ‘사치’인 것이다. 후술할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과 더불어 일자리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노년층의 소득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적연금이 삶의 만족도에 아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못해 혜택을 전혀 못 받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액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사적연금의 가입이나 급여액도 전 소득계층에서 그리 높지 못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하게 되어도, 낮은 급여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약한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층의 삶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노년층은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상향 이동 경험이 높은 세대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향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직업이나 과거 어릴 때 자신의 집안이 속한 사회계층이 현재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과 비교적 뚜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배경의 중요성은 경제성장이 멈추고 학력이 평준화 될수록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동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가족배경의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1차 분배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2차 분배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건강상태는 남녀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나, 소득이나 직업 등과 연관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낮았다. 이번 조사 대상자가 60세에서 74세로 비교적 ‘젊은’ 노인이었기에, 의료접근성의 차이가 건강상태의 차이로 직결되지 않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 여부가 노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농어촌 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김영선. 2012. “노인의 건강 및 의료비용 형평성에 관한연구: 연령집단별 분석” . 보건과 사회과학. 31집: 55~81
- 김학준. 2016. “기이한 현상! 한국의 행복불평등” HERI Review. 39권 (2016년 봄호).
- 오세인. 2016. “은퇴 뒤에도 생계비 위해 취업: 위태로운 ‘미끄럼틀 사회’ ” HERI Review. 39권 (2016년 봄호).
- 이원진.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한국사회학, 47(5), 241-275.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 제6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Anda Grinfelde, baiba Mistre. 2008. “Pension as one of Factors Influencing Older People’ s Life Quality” . Social Research. Nr.4 (14), 36-46
- Binstock, Robert and Linda George (eds.). 2006.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Ed Diner, Micaela Y. Chan. 2011. “Happy People Live Longer: Subjective Well-Being Contribute to Health and Longevity” . 3(1), 1-43.
- Hellivell, John, Haifang Huang, and Shun Wang. 2016. “The Distribution of World Happiness” in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6.
- Holden K. and C. Hatcher. 2006. “Economic status of the aged” in Robert Binstock and Linda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Layard, Richard, Andrew Clark and Claudia Senik. 2012. “The Causes of Happiness and Misery” in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 Lykken. D. 1999. *Happiness: The nature and nurture of joy and contentment*. New York: St. Martin’ s Griffin.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doi:10.1037/h0054346



부록1. 변수 종합 표

변수명	변수값 및 조작화
<b>종속변수</b>	
삶의 만족도 (I14)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 11개 척도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b>독립변수</b>	
성별	남자=1, 여자= 0
최종학력 (A1)	기존 11개 세부 응답을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졸이하로 구분
오랫동안 종사한직업(F2)	기존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숙련기능직, 반숙련 기능직, 단순직, 군인·공무원, 퇴직·무직 11개 구분에서 ①관리자·전문가 ②사무직 ③서비스·판매직 ④농림어업직 ⑤숙련·반숙련직 ⑥단순직 ⑦군인·공무원 ⑧퇴직·무직 8개로 조작화
아버지직업(기본)	기존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숙련기능직, 반숙련 기능직, 단순직, 군인·공무원, 퇴직·무직 11개 구분에서 ①관리자·전문가 ②사무직 ③서비스·판매직 ④농림어업직 ⑤숙련·반숙련직 ⑥단순직 ⑦군인·공무원 ⑧퇴직·무직 8개로 조작화
출신지역(A2)	①서울 ②경기인천 ③경상도(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④전라도(광주, 전북, 전남) ⑤충청·강원·제주(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제주) ⑥해외는 결측처리
거주지역(기본)	①서울 ②경기 ③광역시(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④경상도(경북, 경남) ⑤전라도 (광주, 전북, 전남) ⑥충청도(충북, 충남) ⑦강원·제주
가계월평균소득 (A3-8)	기존 19개 세부 응답을 ①상층(401만원 이상) ②중간층(201만원-400만원) ③하층(200만원 이하)
과거소속계층(H3)	15세 기준 본인의 계층인식을 1(최저)에서 10(최고)로 응답 ① 하층(1-3), ② 중간층(4-7), ③ 상층(8-10)
현재소속계층(H4)	현재 기준 본인의 계층인식을 1(최저)에서 10(최고)로 응답 ① 하층(1-3), ② 중간층(4-7), ③ 상층(8-10)
계층이동분류 (생성)	회귀분석적용= “현재소속계층” 의 값에서 “과거소속계층” 의 값을 뺀 값(-9에서 9)을 1(최저)에서 19(최고)로 변환한 값
	교차분석적용= “현재소속계층” 의 값에서 “과거소속계층” 의 값을 뺀 값(-9에서 9)이 음수면 하강, 0이면 유지, 양수면 상승
상향이동경험(생성)	“현재소속계층” 의 값에서 “과거소속계층” 의 값을 뺀 값이 양수면 ①있음, 나머지 값은 ②없음
배우자선택(A5-4)	① 배우자 사랑(사랑, 신체적 매력, 성격, 취미)=1 ② 배우자 능력 및 집안 (배우자 학벌, 소득, 집안재산, 집안문화) = 0
주거점유형태(A1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④월세 ⑤부모님명의·기타
자가소유여부(생성)	“주거점유형태” 를 ①자가 ②미소유(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부모님소유, 기타)
기회공평성인식(I3)	기존 5개 척도를 ①공평(매우·대체로) ②보통 ③ 불공평(매우·대체로)
취업상태(A3)	기존 일하고 있음, 취업준비, 경제활동하지 않음을

	①취업 ②미취업(준비·비경제활동)
근로유형(A3-1)	①유급근로 ②자영업 ③무급근로
공적연금(F4)	국민연금 수급여부(예, 아니오) 공무원연금 수급여부(예, 아니오)
사적연금(F5)	사적연금 수급여부(예, 아니오)
공적연금액(생성)	국민연금 수령액 + 공무원연금 수령액
의료접근성(F8)	기존 5개 척도를 ①그렇다(매우·대체로) ②보통 ③그렇지않다(매우·대체로)
만성질환개수(F9)	기존 오픈코드를 ① 0개 ②1~2개 ③3~4개 ④5~6개 ⑤7개 이상
자녀와의 만남(F6-2)	기존 8개 척도를 ①전혀하지 않음 ②한 달 1-2회 ③한 달 3-4회 ④ 일주일 3-7회
친구와의 만남(F6-4)	기존 8개 척도를 ①전혀하지 않음 ②한 달 1-2회 ③한 달 3-4회 ④ 일주일 3-7회
문화예술활동(F7-4)	기존 8개 척도를 ①전혀하지 않음 ②분기별 1-2회 ③한달에 2회 ④ 일주일 2회 이상
정치참여(G1,2)	2012년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참여 여부
이념적성향(G5)	기존5개 척도를 ①진보(매우·대체로) ②보통 ③ 보수(매우·대체로)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리포트를 무단전재 및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